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황 인 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과 요구

2019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보육학전공

신 윤 지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과 요구

황 인 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보육학전공

신 윤 지

인 준 서

신윤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바람직한 어린이집 CCTV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CCTV를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16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마다 각 2회씩, 총 20회의 면담이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녹음자료, 면담 전사본, 연구자저널을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비록 어린이집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운영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영아와 상호작용 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

이집 CCTV 운영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교사의 이러한 노력이 자녀의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통해 자녀의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의 사고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고 싶더라도 담임교사 및 원장과의 관계, 사실 확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린이집에 열람의사를 밝히는 과정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열람을 하는 과정에 있어 부모들은 어린이집마다 CCTV 열람 매뉴얼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혼란스러워하였으며 개선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둘째,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들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운영안내 교육이 부모들이 이해하기에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였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 예방’ 뿐만 아니라 CCTV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하루일과 운영을 위한 보조적 기능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불만 사례 해결, 어린이집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 부모 상담 자료 등의 역할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였다. 한편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객관성 있는 평가와 공정한 관리 감독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어린이집 관련 CCTV 영상이 대부분 ‘아동학대사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정되지 않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부모들은 기존에 어린이집을 대하던 소극적이고 비참여적인 태도를 반성하며 어린이집 CCTV 운영관리에 보다 적극적

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모 스스로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자	5
II. 이론적 배경	8
1. CCTV의 개념 및 활용	8
1) CCTV의 개념	8
2) CCTV의 활용	9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및 설치현황	11
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11
2)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14
3. 어린이집 CCTV 운영의 쟁점	15
1) 어린이집 CCTV 운영의 효과	15
2) 어린이집 CCTV 이용 주체의 인식	18
III. 연구방법	22
1. 연구 참여자	22
2. 연구절차	23
3. 자료분석	27

IV. 연구결과	31
1.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	31
1)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31
2) 사고예방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36
3)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39
4) 망설여지는 CCTV 열람요청	42
5) 이해하기 어려운 CCTV 매뉴얼	45
2.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	49
1) 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와 교육	49
2) CCTV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53
3) 엄격하고 확실한 관리기준의 확립	56
4)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	59
5) 관리운영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 관심	61
V. 논의 및 결론	64
1. 논의	64
2. 결론 및 제언	73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23
<표 2> 수집된 자료	26
<표 3>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과 요구 범주화과정	3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전문성 있는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하고 기혼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김경희 외, 2016).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부모의 맞벌이가 증가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도입과 함께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약화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아비율이 단기간에 급증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어린이집 수요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및 부모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며 오랜 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은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2015년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연이어 발생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게 되었다(정현심, 김태연, 2015).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가 거론되었으며, 2015년 4월 30일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김광숙, 2017).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 의무화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

를 반영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어린이집 CCTV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을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김은하, 2014). 또한 CCTV가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학급운영 시 자기장학이나 보육교사의 대변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신뢰도 높아지고, 보육교사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박귀숙, 2016).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의 인권침해, CCTV 열람과정에서의 문제, CCTV 관리 소홀과 같은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어린이집 CCTV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모니터링은 아동 학대 증거확보에는 용이하나 아동 학대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우태, 2017), 어린이집 CCTV 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모들과 달리 어린이집 원장들은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 교사의 인권문제와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유진, 2016). 이와 함께 CCTV 설치는 교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보육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여 교사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거나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관점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김은미, 2016). 이처럼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해 이용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하여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부모, 원장, 보육교사들의 CCTV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이해하여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영아(2017)는 CCTV 운영이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며 아동과의 상호작용에도 위축된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지미예(2017)는 CCTV를 의식하여 나타난 행동의 제약이 위축된 보육태도로 이어질 수 있어 교사의 보육의지가 꺾이고,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육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비롯하여 원장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CCTV로 교사의 근무태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심지선(2017)은 CCTV가 원장과 교사들에게 학부모와의 오해를 해소하고 영유아를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CCTV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CCTV로 인해 보육교사의 업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의견과 함께 교사의 인권침해, 심리적인 부담감, 녹화자료의 노출에 따른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반응이 함께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다(김선영, 2018; 박귀숙, 2016). 또한 CCTV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 맥락에서 교사를 보호하고 부모와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권정윤, 조혜영, 2017).

어린이집 CCTV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부모의 인식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들 모두 CCTV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이유진, 2016) CCTV 정보공개 및 실시간 공개 등 CCTV의 구체적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교사와 부모 간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정연정, 2016). 또한 이러한 인식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주체들 사이의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 제시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최경미, 2017). 김은하(2014)는 CCTV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현대사회는 보육교사와 부모의 배려와 존중 그리고

신뢰가 우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끊임없는 질적 향상을 위한 자기 개발과 CCTV에 대한 긍정적인 활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하였다.

보육현장에서 CCTV가 긍정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과 부모 사이에 이해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CCTV 운영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심지선, 2017).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 및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들은 박귀숙(2016)의 어린이집 CCTV 활용 및 정보공개에 대한 영아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연구, 이유진(2016)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원장·보육교사·어머니의 인식 비교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연구, 정연정(2016)의 CCTV 설치에 대한 교사·부모 인식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연구, 최경미(2017)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보육교사·원장 및 부모의 인식 연구 등 주로 양적연구로 진행되어 CCTV 운영에 대한 인식을 표면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진행된 연구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경험을 탐색하거나(심지선, 2017), 가정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지미예, 2017), 어린이집 교사들이 CCTV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과 바람을 탐색한 연구(이영아, 이대균, 2017)등이 진행되어 어린이집 CCTV 운영과 관련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어린이집 CCTV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와 원장의 경험과 이해를 비롯하여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린이집 CCTV에 대한 경험과 요구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상세하게 이해하고 부모가 왜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상황과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어린이집 CCTV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바람직한 CCTV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어떠한가?

3. 연구자

본 연구자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연구자는 근무지였던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과정부터 함께 참여하였는데 당시 준비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영유아들과 함께 하는 공간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설레었다. 어린이집 개원 후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영아들과 생활하며 보람을 느끼던 가운데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연구자의 근무지는 개원 당시부터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 이제까지 아동학대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이었다. 하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아동학대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자녀들

의 안전을 걱정하였다.

사회적 과장이 컸던 아동학대 사건은 보육교사를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았고 연구자는 보육교사를 바라보는 냉담한 시선에 교사로서 가지고 있던 자긍심이 무너지게 되었다. 당시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며 반복되는 열람과정 속에서 연구자는 보육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기보다 교사를 믿지 못하는 사회분위기에 지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들과 행복하게 생활했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이야기 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보육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날 선 시선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다. 연구자의 낮아진 자존감은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대할 때 지나치게 조심히 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영유아와 함께하는 바깥놀이나 부모면담에 이전보다 더 많은 업무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아동학대의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를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도구로 생각하게 되었다. 더불어 어린이집 CCTV 앞에서 영유아를 안아주거나 식사를 지도할 때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방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라기보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보육교사 업무에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 연구자는 보육현장을 타하기보다 자기개발을 통해 성장한다면 보육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며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연구자가 진학한 대학원은 전공의 특성 상 어린이집 원장, 원감, 교사가 많이 재학하고 있었다. 우연히 대학원 동기들과 이야기하던 가운데 CCTV와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

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기 한명이 최근 어린이집 CCTV 열람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동기들이 각자 어린이집 CCTV 운영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 하게 되며 어린이집 CCTV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어린이집 CCTV 열람과정과 운영방법 등이 자유롭게 이야기 되었다. 동기들은 공통적으로 2015년 어린이집 CCTV 도입 당시보다 CCTV에 대해 많이 익숙해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들이 CCTV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지 않거나 어린이집 CCTV 열람 이후 어린이집을 불편해하는 상황에 대해 동기들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어린이집 CCTV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연구자의 보육교사로서의 경험과 대학원 동기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부모들이 바라는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운영을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함으로써 어린이집 CCTV에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CCTV의 개념 및 활용

1) CCTV의 개념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 혹은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16). 행정자치부(2015)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제 7호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선 혹은 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김두현(2002)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CCTV에 대해 발생하는 상황이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계한 감시 공학 기계를 이야기하며 해당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유선 혹은 무선 전송로를 통해 해당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있다.

CCTV의 구조와 기능은 기기의 성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 구조는 촬상계, 전송계, 수상계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에 있는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에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촬상계, 전기신호를 원격지로 전송하는 전송계, 전송된 영상신호를 재생하여 표시하는 수상계 까지 총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박귀숙, 2016). 아무리 작은 시스템일지라도 위에서 언급한 3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시스템이 구성되지 않으며, 좀 더 규모가 있는 대형시스템의 경우 통괄 제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어계도 포함된다(이승철, 2010). CCTV는 좌우회전이 가능한 ‘Pan’ 기능과 상하회전이 가능한 ‘Tit’ 기

능, 근거리와 원거리 조절이 가능한 ‘Zoom in-out’ 기능을 가지고 있고(조연익, 2010),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한 야간조명과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탐지하는 동작탐지기능, 원격제어기능 또한 갖추고 있다.

CCTV의 저장장치는 과거 센서교체, 비디오테이프의 교체, 알람제어기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아날로그 기능을 통합한 DVR(Digital Video Recorder)방식이 등장했는데, 이 장치는 기존에 사용되던 비디오테이프의 교체 및 관리가 필요없이 영상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하드디스크 장치에 압축 및 저장하고 ‘MPEG’, ‘MJPEG’ 등의 형태로 압축 영상파일로 변환한다(조연익, 2010). 이와 같은 디지털 이미지는 녹화영상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며 컴퓨터의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편의성이 크게 강조되는 발전된 기술이다. 추가적으로 DVR기능은 영상을 압축·저장하는 기능과 저장된 데이터 검색기능, 다수의 카메라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분할감시가 가능한 멀티플렉서기능(Multiplexer) 등이 주요 특징이다(임도재, 2017).

2) CCTV의 활용

CCTV는 1964년 영국의 더햄에서 대중을 모니터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설치 및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는 1971년 처음 보안을 목적으로 활용 되었다(오정은, 2015). CCTV 관련 선행연구(김이창, 2015; 박성용, 2014; 오정은, 2015; 이방우, 2012; 임도재, 2017; 차선희, 2018)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CCTV의 다양한 활용은 방법 및 다양한 목적으로의 활용, 교통정보수집 목적으로의 활용, 환경개선 및 단속 목적으로의 활용, 행정목적으로의 활용, 민간목적에 따른 활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방법 및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초기 어두운 골목이나 주

택가 등 방법이 취약한 지역에서 범죄예방 및 사후처리를 위해 감시하는 목적이었으나, 최근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조 카메라 도입과 같은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차선회, 2018). 강남구에서 설치를 시작으로 2007년 이후 각 자치단체와 함께 치안정책의 핵심사업으로 간주하여 지원받기 시작하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이방우, 2015). 특히 활용 초기에는 치안이 주 목적이었으나 최근 재난 시에도 활용하는 등 다기능적인 활용방안으로 주민과 관련한 민원서비스에 밀접히 활용되고 있다(오정은, 2015).

둘째, 교통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도시지역 광역 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자치단체별 교통정보센터와 경찰청의 중앙교통정보센터를 연계한 광역교통관리체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임도재, 2017). 특정한 차량이나 개인의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교통흐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간단한 조정 장치를 이용하여 어느 방향이든 돌러가며 주위를 감시 할 수 있고 최고 50배 줌기능을 가진 첨단 기기가 사용된다(박종수, 2011).

셋째, 환경개선 및 단속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수배차량 감시,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호단속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는 영상기록을 도로교통법 위반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배차량 감시의 경우 수배차량 및 수배자 소유차량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며 차량통행이 빈번한 주요도로의 시경계 지역에 도입되어 있다(김이창, 2015).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쓰레기 배출지역에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주거지역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지자체의 운영목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설 및 주차관리 등 일반시설관리, 지하철 및 공항시설

등 특수시설 관리, 재난과 산불관리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된다(오정은, 2015).

다섯째, 민간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개인의 필요에 의해 주거지역이나 상가 등의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박성용, 2014). 건축물의 안전관리에서부터 범죄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다루어지게 되며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박종수, 2011).

최근에는 단순한 촬영과 감시를 벗어나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움직이는 객체의 행동을 분석하고 침입이나 폭력과 같은 범죄행위를 감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CCTV 카메라 설치수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관제담당부서를 신설하여 관제장소 통합을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배치와 저장장치를 대형화, 단일화 하면서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이방우, 2015).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CTV는 최근 화소수 개선, 지능형 개발, IT기술 접목 등 다양한 기술발전이 힘입으며 방범용 CCTV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태동, 이서영, 2017).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및 설치현황

1)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점심식사 중 만 4세 아이가 폭행을 당한 아동학대사건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불거져 나왔으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이영아, 이태균, 2017).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어린이집 내의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지미예, 2017). 당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 아동학대는 기관 내 내부자의 신고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 없이는 아동학대 판별이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박경옥, 2018).

2016년 2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 내용이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CCTV 설치 의무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치규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일부 있었다(한정신, 2016). 기존 법률상 CCTV 등의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은 국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CCTV를 포함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수집과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1항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예: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되었고,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 조항이 생겼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와 제15조의 5」에 근거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1항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한데,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요청하는 경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그러하다. 제5항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빠르게 제도화가 되어 CCTV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긍정적 입장과 제도적 미흡함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정적 입장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이여진, 2015). 하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과 부모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며 진행된 결정이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토대로 나타난 법적 제도의 개선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과 부모의 입장 차이를 비롯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갈등사례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세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은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과 후로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2013년 아동보호구역별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6,076곳 중 전체의 83.3%인 5,089곳, 특수학교 주변 162곳 중 42%인 68곳, 유치원 주변 7,236곳 중 29%인 2,099곳, 도시공원 주변 10,969곳 중 24.5%인 2,690 순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어린이집 주변 아동보호구역 36,277곳 중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904곳(5.2%)만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 또한 2013년도 시·도별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포함한 6대 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의 설치는 전체 42,674개 중 13%인 5,827개소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발표된 보건복지부(2015)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총 4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 3,715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38,624개소 중 전체의 99.96%에 해당하는 38,607개소가 설치를 완료하였다. 설치 예외시설은 기존 CCTV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2,668개소를 포함하여 학부모 전체 동의를 받아 CCTV를 미설치한 757개소,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한 290개소가 해당되며, 폐원 절차과정, 소재지 이전, 운영정지 등을 사유로 미설치 된 시설은 17개소가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15). 이는 2년 사이에 전체 어린이집 기준 13%에서 99.6%라는 7배가 넘는 증가수치 보여주고 있으며 2015년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2016)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실내 CCTV 설치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조사 대상 중 보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에 설치한 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통계를 미루어 볼 때 영유아의 주요 활동장소인 교실 내부에서 CCTV가 높은 비율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CCTV 설치확산으로 영·유아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확고함을 알 수 있다(차선희, 2018).

3. 어린이집 CCTV 운영의 쟁점

1) 어린이집 CCTV 운영의 효과

어린이집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어린이집 내에서의 보육교사에 의한 영유아학대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비판이 높아졌으며(최경미, 2017), 어린이집 CCTV운영에 대해서도 영유아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긍정적 입장과 보육교사 및 영유아들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자유, 보육교사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는다는 부정적 입장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권건보, 2011).

CCTV는 범죄의 예방과 사건이 발생된 이후 해결과정에서 기능적 측면이 부각되며 사건을 예방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대중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범인을 발견하여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체포과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이상정, 2011). 이를 어린이집 CCTV 운영의 효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CCTV 설치로 인해 아동학대나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이 감소하여 부모가 어린이집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이영아, 이태균, 2017).

최경미(2017)는 어린이집 CCTV 운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로 아동학대와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안심, 사건의 예방을 통한 영유아의 안전 확보, CCTV 녹화영상을 통해 부모를 비롯하여 교사 또한 문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다시 짚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 CCTV 운영을 통한 부모의 안심에 대해 정현옥(2011)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부모에게 신뢰감을 주는 동시에 안전한 보육환경이라는 믿음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CCTV의 효과적인 이용방안 및 대안이 사용되어질 때 보육교사와 부모와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박귀숙, 2016). 또한 영유아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CCTV 유무에 따라 보육교사의 안전에 대한 생각과 실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한 권미란(2012)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한정신(2016)은 아동학대와 더불어 낮은 안전의식 및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영유아들에게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영유아 간 다툼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서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어린이집 CCTV의 증거 확보 효과는 정확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영상정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현장증거로 중요한 수단이 되며(강선혜, 2015), 나아가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해나가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은하, 2014).

하지만 어린이집 CCTV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부정적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학부모, 교사, 아동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부정적인 효과는 CCTV와 직접 생활하는 교사와 영유아에게 한정된 양상을 보인다(이영아, 이태균, 2017). 서보순, 구은미, 강인자(2016)는 어린이집 CCTV가 교사의 인권과 교사로서의 권리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고 영유아들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어린이집 CCTV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정두승(2015)은 전자적 감시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기본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할 수밖에 없고 CCTV의 오·남용을 규제할 명확한 규정은 현재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으로 영상정보촬영대상이 되는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나달숙, 2011). 이여진(2015)은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큰 쟁점은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한 것이며, 특히 법률 집행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김미정, 김구슬(2016)의 연구에서 향후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이나 삭제 요구 등과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개정된 의무화 규정에서는 교사의 권리가 제한받고 있으므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영유아와 보육교사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녹화영상의 유출 및 남용으로 인해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어린이집 CCTV가 운영되고 보육교사는 개인공간이 없어졌다고 느끼

고 있으며,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보육교사 자신보다 보육실에 설치된 CCTV를 더 신뢰하는 부모들과의 신뢰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정 외, 2013).

이처럼 어린이집 CCTV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실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 부모와 보육교사 사이의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점, 보육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영유아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구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인권침해와 녹화영상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 등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정적 효과는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쟁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CCTV의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CCTV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하기 위한 공정한 CCTV 운영정책과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한 올바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2) 어린이집 CCTV 이용 주체의 인식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학대예방과 안정감 있는 보육현장을 위해 어린이집 CCTV 효과가 강조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정현옥, 2011). 하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과정에서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입장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살펴보기 위한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박경옥(2018)의 연구에서 어린이집 CCTV에 대해 보육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육교사는 부정적 인식을 높게 가지고 있는 반면 학부모들은 긍정적 인식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은하(2014)의 연구에서 CCTV의 필요성과 선호도를 비롯하여 인권침해와 사생활에 대한 교사와 부모간의 인식이 전체

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이용주체별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연구로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실외활동이나 신체활동 시 생길 수 있는 작은 상처나 사고에도 부모들이 무조건 CCTV를 보겠다고 할 때 회의감과 절망감을 느끼며 CCTV를 근거로 교사의 부주의함을 탓하거나 오해가 발생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신현숙, 2017). 또한 이영아, 이태균(2017)과 최은혜(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비롯하여 원장들이 CCTV 관리라는 이유로 교사의 수업이나 행동을 감시하게 되어 교사들로서는 교사직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서연, 홍순옥, 정은주(2017) 또한 교사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언론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CCTV 열람에 관한 제도강화 등 법적인 제도 마련을 제시하며 교사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심지선(2017)과 김진숙(2017)은 보육뿐만 아니라 부모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모가 요구하는 CCTV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어린이집 CCTV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한편 이민지(2018)는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에서 CCTV는 교사가 보지 못한 어린이집 내 영유아 사고에 관련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과정이나 사고의 원인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장들은 어린이집과 관련한 부모들의 불만을 CCTV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석원, 2015).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활용 및 대체방안 마련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김영희,

20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육교직원들은 어린이집 CCTV가 가진 역기능인 사생활 침해나 교권의 자율성과 같은 기본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감시와 제약의 관점에서 CCTV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연희정 외, 2016).

반면 어린이집에서의 CCTV활용을 부모의 입장에서 탐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연구물을 통해 어린이집 CCTV 도입을 찬성해 온 부모의 인식을 살펴보면 김영희(2017)의 연구에서 CCTV 부모들은 CCTV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자녀들의 어린이집에서 더 안전하게 생활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교사와 아동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CCTV가 교직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최경미(2017)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비롯하여 교사의 억울함을 CCTV로 인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의 사생활 침해나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문제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CCTV가 가진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면서도 자녀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CCTV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살펴볼 수 있었다. CCTV 도입 이후, 활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살펴 본 박귀숙(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CCTV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으나 열람절차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설치 후 나타난 긍정적 효과에서도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향상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해 부모들은 영상 뿐 아니라 음성도 보완되어야 하며, CCTV의 철저한 관리와 보완과 더불어 CCTV의 규칙적 공개와 사각지대, 화질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정연정, 2016).

이처럼 어린이집 CCTV에 대해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부모들은 아동학

대의 예방적 기능과 동시에 영유아의 안전사고 확인을 목적으로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달리 교사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사생활 및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불만을 나타냈으며, 원장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가 부모 불만 해결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CCTV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부모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풍부한 사례를 수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을 목적성 있게 선정한다(Patton, 2002). 이에 본 연구는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고려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가 재원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면담에서 주제로 다루어질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 수집을 위해 고려되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을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다양한 CCTV 경험을 탐색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셋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들의 CCTV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능한 영유아기 연령이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 주변의 어린이집 교사 및 부모들로부터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부모들을 추천받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부모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제 및 목적,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며 연구 동의를 구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배경

기관 형태	면담 대상	연령	학력	자녀수	자녀 연령	거주지역
가정 어린이집	A부모	30대 초반	대학원 졸	3	만 2세	서울
	B부모	30대 중반	고등학교 졸	1	만 2세	서울
	C부모	30대 후반	대학 졸	1	만 2세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D부모	40대 초반	대학원 재학	3	만 5세	서울
	E부모	30대 후반	대학 졸	3	만 3세	서울
	F부모	30대 중반	대학 졸	2	만 4세	서울
민간 어린이집	G부모	30대 초반	대학 졸	2	만 3세	서울
	H부모	30대 중반	대학 졸	1	만 3세	경기
	I부모	30대 초반	고등학교 졸	1	만 2세	경기
	J부모	30대 후반	대학 졸	2	만 2세	서울

2. 연구절차

1) 예비연구

본 연구자는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와 관련된 면담 질문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13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2명을 대상으로 각각 2회의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비연구에서 연구자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CCTV와 관련된 부모들의 경험에는 어떠한 것

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CCTV 열람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과 느낌,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해 질문하였고 1회 면담시간은 평균 1시간정도 소요되었다.

예비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부모들이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단답형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들이 어린이집과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어린이집 교사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나누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나 CCTV 열람과정에서의 부모 동의 절차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도 파악할 수 있었다. 예비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 충분한 라포(rapport)형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가 편한 시간에 익숙한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을 시작할 때 연구 참여자의 신상 및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면담절차를 계획하였다. 또한 면담 질문 구성 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및 CCTV 열람절차와 관련한 부모들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면담 태도를 반성하고 면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검토하여 다음 면담에 개선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고자 계획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18년 4월 16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CCTV가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면담과정에서의 연구자의 반성적

사고를 돕기 위해 연구자 저널을 수집하였다.

①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생동감 있는 경험과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Seidman, 2009).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어린이집 CCTV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용하고 편안하며 사적인 곳에서 실시하였다(Glesne, 2008).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면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연구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집 근처 커피전문점, 직장 근처 음식점 등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1회당 소요시간은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1시간 30분으로 연구 참여자마다 각 2회씩, 총 20회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되 연구 참여자들의 대답에서 중요한 의미가 발견되거나 관련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질문을 함으로써 반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처음 만나는 1차 면담에서는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참여자의 신상 및 일상적인 주제, 자녀양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이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인식 및 CCTV에 대한 부모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질문하고 어린이집 CCTV 운영과 관련한 부모들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2차 면담에서는 면담 시작 전 연구 참여자와 1차 면담에서 다루어졌던 내용과 의미해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1차 면담에서 연구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청하고, 어린이집에서의 CCTV 운영 효과 및 CCTV 운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과 요구 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하였으며, 녹음내용은 면담 후 24시간 이내에 전사하였다. 총 20회기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양은 녹음파일 24시간 38분, 전사본 A4용지 90장, 연구자 저널 A4용지 6장이다. 또한 2회 면담 외 추가정보 및 확인이 필요할 시 문자 혹은 전화 등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표 2와 같다.

<표 2> 수집된 자료

자료목록	수집기간	수집된 자료
면담 녹음	2018년 4월 16일 ~ 8월 31일	녹음파일(24시간 38분)
면담 전사본		녹음파일 전사 (A4용지 90장)
연구자저널		연구자 저널 (A4용지 6장)

② 연구자저널

연구자는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여 면담분위기, 면담 과정에서의 연구 참여자들의 상태와 변화과정, 면담 시 어려움과 문제점 등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기록하였다. 연구자 저널은 연구 참여자와 면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주 1~2회 정도 분량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중 2명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보육교사였던 경험의 영향으로 부모의 입장에서 면담을 진행하기 보다는 교사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질문을 건네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며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면담과정에서 연구자의 실수를 바로잡아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총 20회의 면담 중 4회까지 면담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서 의미를 찾고 내용을 이끌어내기보다 의도된 질문을 건네며 CCTV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실수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입장이 되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의도로만 경험을 이해하고 면담자료를 해석하려는 실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5회 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의도적인 해석이 아닌 부모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연구자의 개선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연구자 저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며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한 녹음자료, 면담 전사본, 연구자저널과 연구자의 저널이다. 자료 분석은 김영천(2016)이 제시한 ‘포괄적 분석 절차’에 따라 전사 작업, 메모작업, 개방코딩, 심층코딩, 주제발견의 과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후 녹음한 내용을 가능한 24시간 이내 바로 전사하여 면담의 느낌과 상황맥락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알게 된 것이나 면담과정에서의 연구자 스스로의 반성적 사고를 돕기 위해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였다. 또한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를 읽으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단어나 문장은 표시해두고 핵심 단어별로 구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신뢰’, ‘아동학대 예방’, ‘교사의

개선된 태도’, ‘열람에 대한 고민’, ‘어려운 열람매뉴얼’, ‘안내교육’, ‘정부개입’, ‘활용’, ‘부모반성’, ‘언론’ 등의 핵심 단어를 정리하였고 전사된 자료를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읽으며 질문 내용별로 분석하여 부모의 경험과 관련한 ‘CCTV로 인해 어린이집을 신뢰’, ‘CCTV 운영을 통한 교사들의 재정비’, ‘안전사고 및 특정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함’, ‘CCTV 열람과정에서 어려움 경험’, ‘어린이집마다 다른 CCTV 열람기준을 경험’이라는 범주와 부모의 요구와 관련한 ‘어린이집에서의 CCTV 안내교육이 필요함’, ‘CCTV의 다양한 활용방안 필요’, ‘엄격하고 확실한 CCTV 관리기준 필요’, ‘언론에서 어린이집과 CCTV를 전달하는 과정을 자극적이라고 느낌’,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필요’ 등의 범주로 구체화하였다. 질문 내용별로 범주화된 내용은 범주별로 종합할 수 있는 주제들로 최종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범주는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의 두 개의 상위범주이며 각각 상위범주 별 다섯 가지의 하위범주로 정리되었다.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사고예방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망설여지는 CCTV 열람 요청, 이해하기 어려운 CCTV 매뉴얼이라는 다섯 가지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로는 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와 교육, CCTV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엄격하고 확실한 관리기준 확립,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 CCTV 관리운영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 관심이라는 다섯 가지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자의 올바른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자료를 전사한 뒤, 다음 면담 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면담 내용에 대한 의미해석이 본래의

의미와 근접한지를 검증하는 구성원 검토작업(Bogdan & Biklen, 2010)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적, 해석적, 오류를 줄이고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면담내용과 코딩내용에 대해 연구 참여자를 비롯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는 유아교육전문가 1인, 유아교육 석·박사 2인에게 자료 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주제에 따른 범주화 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과 요구 범주화 과정

구분	1차 범주화	2차 범주화	최종범주화
어린이집C 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는 긍정적인 역할 2. 어린이집 CCTV 열람과정에서 어려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CTV로 인해 어린이집을 신뢰함 2. CCTV 운영을 통한 교사들의 재정보비 3. 안전사고 및 특정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함 4. CCTV 열람과정에서 어려움 경험 5. 어린이집마다 다른 CCTV 열람기준을 경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2. 사고예방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3. 정화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4. 망설여지는 CCTV 열람 요청 5. 이해하기 어려운 CCTV 매뉴얼
어린이집C 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된 안내교육의 필요 2. 엄격한 관리기준의 필요 3.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집에서의 CCTV 안내교육이 필요함 2. CCTV의 다양한 활용방안 필요 3. 엄격하고 확실한 CCTV 관리기준 필요 4. 언론에서 어린이집과 CCTV를 전달하는 과정을 자극적이라고 느낌 5.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와 교육 2. CCTV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3. 엄격하고 확실한 관리기준의 확립 4.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 5. 관리운영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 관심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운영과 관련한 경험과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

부모들의 어린이집 CCTV운영과 관련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사고예방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망설여지는 CCTV 열람요청’, ‘이해하기 어려운 CCTV 매뉴얼’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부모들은 CCTV는 아이들의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해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CCTV가 생긴 건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CCTV 앞에서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한 일들이 생길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제 마음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부모로서의 CCTV의 필요도 선생님들의 불편함도 중요하게 느껴져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어린이집에 CCTV가 있어야한다는 생각과 반

대로 어린이집 CCTV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거죠. 그래도 서로가 믿으려면 꼭 어린이집 CCTV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

<A어머니, 2018. 8. 28.>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CTV가 불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많이 침해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입장으로는 어린이집에 CCTV가 생긴게 좋게 느껴져요. 선생님들도 아이들 보육하다가 속상하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CCTV로 인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 알았던 것이라고 정리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입장, 엄마 입장에서 아이안전이 의심 되어 속상할 수는 상황에서도 보호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에 CCTV가 있거나 없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속상한 상황에서 CCTV를 통해 보호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고 신뢰가 쌓인다는 생각에서 어린이집에 CCTV가 운영되고 있는게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D어머니, 2018. 7. 11.>

위 사례와 같이 부모들은 CCTV를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들은 CCTV가 어린이집 교사를 녹화하는 상황에 자신의 입장을 대입해보며 교사들의 입장이라면 CCTV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인권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너무 어리니까 어린이집에 CCTV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직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요. 선생님들이 어린

이집 CCTV 때문에 교사로서 권위와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하시지만 감안하고 근무해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선생님들을 믿긴 하지만 100% 무조건 믿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도 어린이집에 CCTV가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나 선생님한테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잘 봐주시겠지 하고 기대게 되는 거 같기도 하구요.

<E어머니, 2018. 7. 17.>

위의 사례와 같이 부모들은 CCTV 운영을 부모의 입장과 교사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들은 교사의 입장에서 어린이집 CCTV가 교사의 권위 및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안전사고나 아동 학대 등 부모가 교사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CCTV 확인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는 교사와 부모, 영유아 모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운영함으로써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덜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만약에 아이의 안전사고나 알림장을 통해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린이집 CCTV를 보게 되면 내가 불안해하던 문제 상황을 확인하게 되니까 불안함이나 의심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어린이집에서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게 교사와 부모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해소하게 되고 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을 믿게 되는 거 같아요.

<C어머니, 2018. 6. 1.>

한편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CCTV가 도입되고 부모들의 열람이 가능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어린이집은 교사와 원장이 인권침해 및 운영상의 이유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부모들은 CCTV 설치 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처음에는 뉴스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나 다른 엄마들이 어린이집 CCTV에 대해 이야기해도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고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좋았어요. 믿음도 가고 꼭 필요하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어린이집에 CCTV가 생기는 과정에서 선생님이나 원장님의 불편함 때문에 걱정도 많고 반대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이집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원장님도 엄마들한테 더 많이 어린이집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 같고. CCTV가 설치되기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것 같아 저도 어린이집을 더 믿게 되었어요.

<G어머니, 2018. 8. 5.>

위의 사례와 같이 부모들은 CCTV 설치 이후 어린이집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및 학급의 개선 방안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은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촬영 구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내부시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노후 된 놀이기구나 수납장 등을 정비해나가며 어린이집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통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와 원장의 모습은 부모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었다.

첫째아이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전이라서 어린이집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녹화된다고만 간단히 이야기 하셨어요. 하지만 둘째아이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여서 그런지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이유로 운영하고 있고 촬영위치는 어디인지 자세히 안내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교실, 놀이터, 식당 같은 곳만 녹화된다고 하셨고 방법이나 안전 때문에 일정구역만 녹화된다고 하셨거든요. 어린이집 CCTV 때문에 어린이집에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J어머니, 2018. 7. 18.>

위 사례와 같이 같은 어린이집에 두 자녀를 보내면서 CCTV가 운영되지 않았던 상황과 CCTV가 운영되었던 상황을 경험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믿음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는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집 부모들이 CCTV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 CCTV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믿음이 가죠. 만약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옮기거나 입학으로 고민할 때도 저는 CCTV가 운영되는지를 확인 해 볼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조심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CCTV가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B어머니, 2018. 7. 23.>

이처럼 어린이집 CCTV에 대한 부모의 신뢰감은 이미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다니게 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원장이나 교사들이 부모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전달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 만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운영을 통해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처럼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더욱 견고한 신뢰를 형성하고 있었다.

2) 사고예방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운영을 통해 교사들이 CCTV를 의식하고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하며 잘못된 보육교사로서의 태도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러한 보육교사의 자기점검을 통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누가 나를 지켜본다는 게 그 시선을 의식하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CCTV 열람을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CCTV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에서 더 나은 태도로 나타날 것 같아요. CCTV 앞에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긴장하게 될 테니까 아이들 안전사고도 적을 거 같아요. CCTV가 있어도 나쁜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거칠게 행동하시겠지만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전 어린이집에 CCTV가 있으면 아이가 좀 덜 다치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2018. 7. 30.>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다쳤던 이야기를 들으

면 우리 애는 어린이집에서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요. 괜찮은 걸까. 근데 애한테 물어봐도 딱히 시원하게 들을 수는 없고 그냥 아니라고 하면 안심하는 정도예요. 워낙 CCTV 생길 때 아동학대 문제로 시끄러웠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심히 아이들을 봐주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선생님들도 조심 하실 거고 알고 있지 않을까요.

<B어머니, 2018. 7. 23.>

부모들은 교사들이 어린이집 CCTV를 의식하여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하고 자녀에게 상냥하게 대하거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민감하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교사의 태도는 교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무래도 저는 부모입장에서 CCTV가 있으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 한 번 더 본인을 뒤돌아 볼 것 같아요. CCTV가 촬영 한다는 것이 어린이집의 위험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규제하는 의미니까요. 어린이집에서 CCTV가 교실 안을 찍고 있으니까 아이들 보육에 있어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더 신경 쓰시는 거 같거든요. 아동학대로 우리 아이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예방되는 거 같아요.

<C어머니, 2018. 6. 1.>

CCTV가 있으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나쁜 말이나 거친 행동을 조심하실 것 같거든요. 내가 없을 때 CCTV가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겠구나 하고 안도감이 들어요. 꼭 선생님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CCTV를 의식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들이 예방 될 거 같거든요.

<G어머니, 2018. 8. 5.>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행동을 더욱 조심하게 되는 것 같으며 지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부모들은 CCTV를 통해 교사의 거친 언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선생님들도 CCTV가 생기고 나서 감시당하는 것 같은 불편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셨다고 들었어요. 계속 조심하고 신경쓰다보면 제가 선생님께 가질 수 있는 아이와 관련된 오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좋은 태도를 보여주실 테니까요. 선생님을 감시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만약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아이들을 지키자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계속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H어머니, 2018. 8. 30.>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밥은 잘 먹었나 걱정되죠.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에 관해서 워낙 나쁜 이야기도 많이 들리니까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나쁘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걱정돼요.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CCTV를 의식하다 보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어린이집에 CCTV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J어머니, 2018. 7. 18.>

둘째아이가 등원할 때 유독 너무 힘들어했어요. 다른 반 선생님이 당직을 서면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고 헤어질 때 힘들어하고요. (중략) 다른 반 선생님이 우리아이를 혼내거나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하는 걱정이 항상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하고 애는 맡겨야 하잖아요. 어린이집에 CCTV가 있다고 사고의 위험이 완전

히 해소되지는 않아도 선생님이 아이들 대하는 걸 조심하시면 아이들 사고가 어느 정도 예방되지 않을까 하는 안도감이 있어요. 아이 때문 에라도 저한테는 CCTV가 꼭 있어야 했어요.

<D어머니, 2018. 7. 11.>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모들은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에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느끼게 되며 특히 담임교사가 아닌 통합반 선생님에게 자녀를 인계하는 상황에서는 걱정이 더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들은 CCTV 앞에서 조심하게 되는 본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CCTV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고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부모들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자녀의 안전사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다. 부모들은 주로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다치거나 어린이집에서의 대처상황들이 궁금할 때 열람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CCTV 열람을 최근에 두 번 정도 해봤어요. 한 번은 딸아이가 얼굴이 세 줄로 짝 굽혀서 집에 왔어요. 고민하다가 담임선생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쭙봤는데 다친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얼굴이 저렇게 됐다고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CCTV 열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 원장선

생님이 아이가 다친 이유를 모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먼저 열람 권유를 하셨고 확인 할 수 있었어요. CCTV를 보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A어머니, 2018. 8. 28.>

아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100일된 아기가 잠을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청색증이 왔던 거죠. 그때 원장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하고 정말 위급했다고 해요. 119가 도착하고 병원へ가서 호흡이 다시 돌아왔다고 이후에 경찰이 와서 응급처치나 상황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F어머니, 2018. 6. 7.>

아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같은 반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양팔에 멍이 들었다고 해요. 하원할 때 담임선생님이 다쳤던 상황에 대해 말씀은 하셨지만 엄마가 집에서 아이 팔을 보면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린이집에 CCTV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열람했다고 해요. CCTV를 확인하면서 원장님이 친구엄마한테 CCTV가 없었으면 어머니도 많이 걱정 하셨을 거고 오해 하셨을 텐데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던 일이 생각나요.

<H어머니, 2018. 8. 30.>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해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부모들은 CCTV 열람을 통해 자녀가 다쳤던 상황을 파악하고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의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데 있어 정확하

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CCTV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CCTV 열람 경험이 없는 부모들도 어린이집에서 안전이 의심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CCTV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가 등원할 때 가끔 인형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아이한테 인형은 집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설명해줬고 안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낮잠시간에 선생님이 밖에 나간다고 무서워서 인형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물론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 잠시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없을 때 일이 생기면 CCTV로 왜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G어머니, 2018. 8. 5.>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선생님이 한 분 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 마중하러 현관에 나오면 선생님이 없는 교실이 너무 걱정됐어요.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에 선생님하고 이야기 하지 않고 바로 들여보내요. 열른 교실 들어가라 재촉하면서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할말 있으면 키즈노트에 쓰게 돼요. 이럴 때는 어린이집에 CCTV가 있어서 다행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 다른 친구가 오면 우리 아이도 친구들이랑 반에 오롯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CCTV로 사실을 확인 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어머니, 2018. 7. 17.>

이처럼 부모들은 한 명의 교사가 운영하는 학급에서 등·하원 시간동안 교사가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거나 낮잠시간에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등 영유아만 교실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

약의 사고에 대해서도 CCTV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4) 망설여지는 CCTV 열람요청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운영을 통해 자녀의 안전사고 예방을 기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상황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모들은 열람에 대한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 어린이집에 열람의사를 밝히는 과정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설사 CCTV를 열람할 기회가 있다고 해도 아이가 크게 다친 게 보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이상 굳이 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CCTV를 봤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이지만 내가 의심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으니까요. 담임선생님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동안 힘든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예요. 그리고 만약 CCTV를 봤는데 정말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이 어린이집을 선택한 엄마로써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D어머니, 2018. 7. 11.>

저는 아직까지 불만한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CCTV를 보게 된다면 쉽게 보지 못 할 것 같아요. 좋은 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어린이집에 아이가 다니면서 사고를 겪은 거라는 죄책감이 들 것 같거든요. 내가 다른 어린이집을 선택했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지 않을 수도 있는데 후회하고 자책할 것 같아요.

<F어머니, 2018. 6. 7.>

부모들이 가지는 고민 중 하나는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녀의 사고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생기는 죄책감이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입학하게 된 이유에는 본인의 선택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를 겪는다면 부모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교사와의 갈등 또한 부모들이 열람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로 나타났다.

어쩔 수 없잖아요. 믿고 보내는 거죠. 제 주변 지인들도 믿고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아이는 그런 일 없겠지 그냥 어린이집 믿고 보내자 이렇게 말이죠. 물론 가끔 궁금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보고 믿음이 깨지면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원장이랑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까봐 보지 않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안보고 넘어 가는 게 그래서죠.

<H어머니, 2018. 8. 30.>

내가 선생님이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수업한 CCTV를 본다면 기분이 나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부모입장에서는 또 CCTV 봐야겠다는 상황도 있어요. 선생님이 불편하시겠지만 봐야하는 마음 때문에 CCTV를 보고나면 혹시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불편했던 감정을 전할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CCTV 보지 말고 그냥 내가 평소에 더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자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괜히 부모욕심에 CCTV 한번 보려다가 선생님이나 어린이집하고 꺾고러워지는 것 같아서요.

<G어머니, 2018. 8. 5.>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엄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원장님이나 어린이집은 엄마들이 믿고 보내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니까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보내죠. 하지만 부모입장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궁금하긴 해도 혹시 제가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이 선생님께 실례가 될 수도 있고 어린이집과 부모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생길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E어머니, 2018. 7. 17.>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시 교사와 원장이 열람사실을 불편해 할 수 있으며 부모와의 관계도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CCTV 열람으로 인해 나빠진 부모와 교사관계의 영향으로 자녀가 상처를 입게 될까 걱정하였다.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자녀를 차별하거나 관계하기 불편한 부모의 자녀라고 낙인찍힐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열람 경험은 없어요. 주변에서 열람 경험이 있는 분들 이야기로는 열람을 한 번 하려고 하면 어린이집을 그만 둘 생각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한다고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람을 할까 했는데 결국 보지는 않았다고 해요. 보면 자기가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결국 어린이집은 그만뒀고요. 거의 CCTV를 열람한 경우가 어린이집에서 다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CCTV가 있는 건 좋은데 엄마들은 열람하기까지 고민도 많고 강한 마음도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CTV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도 없고 복잡한 과정 속에서 엄마들이 지치기도 하고 어린이집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B어머니, 2018. 7. 23.>

엄마들은 CCTV를 의식한다거나 어린이집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시간으로 CCTV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끔 들기 해요. 하지만 CCTV를 보고나면 좋을 건 없을 거 같아요. 더 간섭하게 될 거 같거든요. 걱정되거나 궁금한 때 순간마다 연락하고 싶어 질 것 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보게 되면 상황에 집착해서 어린이집을 항상 의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보지말자는 거죠. CCTV를 보는 과정까지 엄마들은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있어요.

<C어머니, 2018. 6. 7.>

한편 위 사례와 같이 부모들은 CCTV를 열람하게 되었을 때 부모 스스로 어린이집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어린이집을 의심하고 지나치게 간섭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이집 상황에 대해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기도 하지만 IPTV¹⁾를 열람하면서 교사보다는 IPTV를 더 믿게 된다는 지인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CCTV 열람을 자제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5) 이해하기 어려운 CCTV 매뉴얼

어린이집 CCTV 운영과정에서의 일관적이지 않은 열람 매뉴얼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부모들은 CCTV 열람 매뉴얼에 대해 공정하다는 인식보다는 CCTV 열람을 요구하는 부모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일부 절차가 무시되는 열람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 양방향 서비스로 방송수단으로서의 TV와 통신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이 융합되어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정의 할 수 있다(정현옥, 2011).

어린이집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방침이 다 달라요. 어린이집마다 CCTV 열람하는 과정이 달라서 애매모호하고요. CCTV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이야기가 달라요. 정말 열람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맞는 것인지 헷갈려요.

<I어머니, 2018. 7. 30.>

저희 아이 고모랑 제 친구가 다 저랑 같은 동네 살아요. 어린이집도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들이고요. 하지만 같은 동네인데도 CCTV 열람이 더 쉬운 어린이집이 있긴 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열람이 쉬운 어린이집면 더 좋죠. 나눠주는 책자나 안내문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매뉴얼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실제로는 다른 CCTV 매뉴얼이라서 누가 맞게 운영하고 누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C어머니, 2018. 6. 7.>

어차피 우리아이가 있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열람 과정에 대해 세세하게 오픈하는 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싫으실 수 있겠지만 서로 투명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꼬투리잡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변에서도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CCTV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어린이집 입장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른 어린이집이랑 다르게 본 인만 못 본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더 의심하게 되고 안 좋게 이야기 되는 거 같아요.

<D어머니, 2018. 7. 13.>

부모들은 같은 지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지만 CCTV 열람 매뉴얼은 실제로 다르게 운영된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CCTV 열람 과정에

서 어린이집에 따라 이용절차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어떤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하는 동시에 열람 과정이 더 쉬운 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하는 등 부모들이 보이는 태도에 따라라도 CCTV 열람 과정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학부모들 성향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CCTV 열람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인데도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열람을 요구하는 어린이집이랑 그냥 선생님 믿고 보내자 하는 어린이집은 CCTV를 보는 과정이 다르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운영하시는 열람 과정이 제각기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 어린이집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인지 고민도 되더라고요. 어떤 열람 과정을 따르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F어머니, 2018. 6. 14.>

부모들은 누구에게나 일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CCTV 열람 매뉴얼이 이처럼 어린이집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어린이집 CCTV 운영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나아가 어린이집 CCTV의 일관되지 않은 운영과정을 확인한 부모들은 어린이집 전체의 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저희 딸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고 이야기 됐었죠. 그때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원장 선생님이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CCTV 열람이 급하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순서나 절차로 따지면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동의를 되어서 열람했어요. 동의는 받았지만 회의를 거

친 게 아니라 원장님의 통보형식으로 진행된 부분이었어요. 사실 열람 과정도 서류상에서는 규칙이 있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 내부에서 상황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죠. 밖에서는 모르실테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거 같아요.

<A어머니, 2018. 8. 21.>

어린이집에서 두 아이가 관련 된 문제라면 두 아이의 부모에게 다 동의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CCTV열람은 가능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학급친구들한테도 다 받아야 하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얼굴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다치고 부모가 원장님한테 가서 CCTV 열람을 요청하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볼 수는 있다고 해요. 엄마가 화나거나 흥분해 있으면 쉽게 보여주시면서 달래주신다고 하는 게 때로는 일관성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G어머니, 2018. 8. 1.>

며칠 전에 아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날 때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데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어린이집 CCTV를 보자고 했데요. 근데 CCTV 열람 가이드랑 다르게 바로 CCTV를 보여줬다고 들었어요. 누구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어요.

<I어머니, 2018. 7. 30.>

위의 사례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사고로 크게 화를 내거나 열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CCTV 열람 절차

가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약식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CCTV 열람이 가능했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런 열람 과정이 어린이집 원장과 열람을 요청한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린이집의 잘못이 외부로 잘못이 알려지기 어려운 폐쇄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

부모들의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와 교육’, ‘CCTV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엄격하고 확실한 관리기준의 확립’,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 ‘관리운영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 관심’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와 교육

부모들은 어린이집으로부터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CCTV 운영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들이 CCTV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안내가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고 일방적 전달이 아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지역마다 어린이집 CCTV 운영이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근데 뉴스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나라에서 공문이 온다거나 그게 어

렵다면 아예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할 때 CCTV 운영방침이나 관련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한 거 같아요. 아이 어린이집 입학하려고 준비 할 때도 시설현황 말고는 알 수도 없었어요.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해도 여간한 일 아니면 못 본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제가 CCTV에 대해 궁금하면 도대체 어딜 어떻게 찾아 봐야 하는 건가 궁금하고 속상했어요.

<F어머니, 2018. 6. 7.>

저희 아이가 5월에 입소해서 개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인지 CCTV에 대해 세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물론 CCTV 안내문이나 관련된 안내책자에는 있긴 해요. 하지만 엄마들이 꼼꼼하게 읽어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CCTV에 대해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렇다고 CCTV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다시 어린이집에 찾아가 물어보거나 제가 따로 공부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C어머니, 2018. 6. 1.>

CCTV 녹화기간이나 열람방법 같은 자세한 규정들을 안내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관련 영상을 열람하고 싶은데 고민하는 사이에 저장기간이 지나면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저희 큰아이 때 어린이집의 실수겠지만 CCTV 열람요구를 했는데 기계오류로 없다고 말씀 하셨어요. 기기 오작동이라고요. 그러니까 CCTV영상을 더 요구하거나 확인 할 수도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CCTV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좋을 텐데 녹화유무만 안내 해주셨어요.

<J어머니, 2018. 7. 11.>

이처럼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CCTV 이용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물어보거나 안내책자를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CCTV 촬영 저장기간 문제로 어린이집에 확인하고 싶었던 상황을 볼 수 없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린이집에서의 CCTV 안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부모들은 CCTV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이용 안내가 부모들이 실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안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학부모들한테 CCTV가 의무화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방침이나 열람 과정에 관한 내용들이 자세히 안내되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엄마들은 CCTV가 있다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자세한 대처방법이나 CCTV 관련내용들을 알아봐요. 평소에는 CCTV에 대해 아주 간단한 지식만 있으니까요. 어디서도 공지나 안내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I어머니, 2018. 7. 25.>

어린이집에서 나눠 준 정부 CCTV 안내책자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져요. 어린이집에서 해주는 CCTV 안내교육도 두루뭉술하게 느껴지고요. CCTV 열람 과정이나 운영에 관련된 사례나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CCTV가 엄마들한테 전문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공부하셔서 부모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D어머니, 2018. 7. 13.>

이처럼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운영방식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해 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 CCTV 이용안내교육이

부모와 운영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혹시 CCTV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계속 어린이집을 의심하고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보게 되요. 제가 안타까운 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CCTV가 어디어디 설치되어있고 열람방법이나 저장기간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도 진행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E어머니, 2018. 7. 17.>

어린이집에서 오리엔테이션이나 부모교육 할 때 CCTV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원장님이 어린이집 소개하고 각자 담임선생님 만나고 헤어져요. 이렇게 엄마들이 모일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학부모랑 어린이집이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CCTV에 대해 이야기하면 의식도 가지게 되고 관련정보도 알게 되서 좋을 거 같아요. 일방적으로 듣거나 이해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궁금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G어머니, 2018. 8. 5.>

이처럼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받았던 CCTV 안내 교육의 경우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형태로 부모가 가진 CCTV 운영에 관한 질문들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들은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 시간동안 원장과 교사,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형식의 CCTV 안내교육 및 CCTV 카메라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라운딩형식의 교육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CCTV 안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 CCTV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가 효율적인 하루일과 운영을 위한 보조적 역할 및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 사례를 해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어린이집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부모 상담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 예방의 목적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였다.

어린이집 적응기간 동안 0세나 1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있으면 아이들이 울어서 정신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잠깐 아이랑 엄마가 분리될 때도 함들고. 그럴 때 CCTV 모니터를 이용해 개방하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CCTV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적응하는데 도움도 되고 엄마들 입장에서 안심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A어머니, 2018. 8. 28.>

저희 어린이집은 원장님이 아이들 산책 갔다 돌아올 때 미리 신발장에 나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선생님 혼자 아이들 신발 정리하기 어려우니까 엄마들이 있을 땐 가끔 도와드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아이들 산책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알고 그러시나 궁금했거든요. 어느 날 무슨 이야기하던 끝에 그러시는데 아이들 산책에서 올 시간 즈음 돌아오는 쪽 골목 현관 CCTV 확인하고 미리 나가서 애들 맞아주시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도 아이들 인솔하기 편하고 아이들도 다른 친구 기다리다 짜증도 내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E어머니, 2018. 7. 17.>

이처럼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가 신입원아 적응기간 동안 아이들과 헤어져야 하는 부모들에게 교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활용된다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의 적응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산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오는 것을 원장이 CCTV로 확인하고 아이들을 직접 맞이하며 신발정리나 옷 정리를 도와주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어린이집 CCTV가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번에 아이 어린이집 등원하는 길 골목에 술 취한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무서운 마음에 아이 데리고 열린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긴 했어요. 하지만 요즘 묻지마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불안해졌어요. 아이 어린이집에는 여자 선생님들만 계신데 나쁜 마음먹고 누가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요. 이럴 때는 선생님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지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은행 CCTV처럼 말이죠.

<G어머니, 2018. 8. 5.>

제 친구 어린이집 같은 반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술 마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주차장 옆에 쓰레기봉투 버리는 곳에 맥주캔이랑 소주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마 선생님들이 그러실까 싶었어요. 어떻게 애들이랑 생활하는 곳인데 선생님들이 술을 먹겠나. 결국 한 엄마가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원장님이 CCTV를 확인했어요. 알아보니 다른 집에서 버린 걸로 확인되어 오해가 풀렸더라고요. 괜히 선생님들만 곤란하실 뻔 했죠.

<I어머니, 2018. 7. 30.>

위 사례와 같이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을 해결하는 용도로 활용되거나 어린이집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을 예방하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자녀를 관찰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담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랑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손을 좀 심하게 물어뜯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피도 났고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왜 그러는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나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린이집에서는 손을 물어뜯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믿기 어려웠죠. 다음에 통합반에 저희 아이만 혼자 있을 때 선생님께 양해 구하고 CCTV로 아이 놀이하는 거 봤는데 손을 입에 가져가지도 않고 선생님이랑 잘 놀더라고요. 그제서야 선생님이랑 원장님 말씀 믿게 되고 집에서도 손 입에 물지 않도록 조언 구하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2018. 7. 30.>

위의 사례에서 부모는 어린이집 CCTV로 자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가정에서 보이는 행동을 어린이집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교사의 말을 듣고 부모는 교사가 아이에게 관심 없는 것은 아닌가 하여 교사가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자녀의 놀이모습을 보면서 교사를 신뢰하게 되었고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3) 엄격하고 확실한 관리기준의 확립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의 CCTV 영상훼손 사례 및 어린이집마다 서로 다른 CCTV 열람 매뉴얼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처럼 명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가 엄격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CCTV를 설치해놓고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점검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CCTV를 잘못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책임을 묻는지 궁금해요. 저만 이렇게 궁금한 건 아닐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부모들은 CCTV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관리하고 있겠구나 하고 믿는 거죠. 하지만 영상을 삭제했다거나 CCTV 열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정말 하나도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I어머니, 2018. 7. 25.>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아동학대 정황이 추측돼서 어린이집에 갔는데 처음에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하다가 CCTV 영상을 요청하니 이미 삭제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과태료만 나오고 만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돈 내면 되겠지만 부모는 속상하고 이 상황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어린이집 유형마다 구분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고는 하는데 그 곳에서 운영되는 CCTV가 개인의 마음대로 관리 될 수도 있다는 게 모순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CCTV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잘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B어머니, 2018. 7. 23.>

위의 사례처럼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운영에서 나타나는 영상관리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이 CCTV를 임의로 조작하여 녹화영상이 삭제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에서도 CCTV 녹화영상 삭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전 어린이집 CCTV 운영 매뉴얼을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살펴보면 어린이집 열람 과정에서 어린이집 재량에 맡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해 못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집마다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영상분석하거나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거 같아요. 원장님이나 교사가 보는 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나라에서 관리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H어머니, 2018. 8. 25.>

CCTV 영상자료 임의관리 못하게 중앙에서 통제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인권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하지만 가끔 임의로 CCTV를 조작하는 어린이집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엄격하게 다루면 어린이집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아요.

<F어머니, 2018. 6. 7.>

위 사례와 같이 부모들은 어린이집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어린이집 CCTV 열람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들은 CCTV 열람 과정에서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있으며 문제영상을 판단 할 때 관련분야 전문가가 아닌 원장, 교사, 부모가 판단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부모들은 CCTV를 임의로 관리하고 조작하는 어린이집에 불만을 가지며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되기를 기대하였다.

큰아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위생이랑 급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주방에 CCTV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볼 수 있나 요구했는데 CCTV 영상이 삭제된 것 같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좋은 재료로 먹인다고 하셨는데 홈쇼핑으로 떡갈비를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건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 경험 때문인지 앞으로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J어머니, 2018. 7. 18.>

CCTV를 하나도 관리 안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확인하다 보면 CCTV가 있었지만 관리소홀이었다고 꼭 이야기되잖아요. 물론 많은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잘해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몇몇 원장님들이 CCTV를 마음대로 관리하시는데 엄마로서는 조금도 용납이 안돼요. 마음대로 CCTV를 관리하는 부분을 방지하려면 엄격히 관리해야죠. 나라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줬으면 좋겠어요.

<C어머니, 2018. 6. 7.>

이와 같이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를 정부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어린이집에서 CCTV 녹화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CCTV 열람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관리에 대한 정부개입이 강화된다면 어린이집에서도 정부를 의식하여 보다 공정하게 CCTV를 관리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4)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

부모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뉴스와 관련된 영상자료를 보게 되는 경우 학대 등의 사건중심의 자극적인 학대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뉴스보도를 통해 사고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언론보도를 통해 부모가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은 나아가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언론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전 어머니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관련 뉴스에 눈이 가요. 요즘은 인터넷 뉴스에도 CCTV 증거영상이라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뉴스도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헤드라인도 힘껏 때렸다는니 밀쳤다는니 단어가 너무 무섭구요. 저는 일부러 뉴스 제목만 보고 지나치려고 해요. 뉴스 내용이 다치는 장면만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부모니까 몰입되는 것도 있지만 가끔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 될 때가 있어요.

<E어머니, 2018. 7. 17.>

요즘은 뉴스 제목부터 엄청 자극적이잖아요. 제가 부모여서 그런지 어린이집 뉴스에 더 눈이 가요. 그리고 내용이 아동학대나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경우에는 더 공감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똑같은 거 같아요. 특히 반복적으로 사고 장면이 나오거나 아이가 학대받는 장면이 보여지면 너무 놀라요. 그리고 그 장면에 몰입하게 돼요.

<G어머니, 2018. 8. 5.>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CCTV가 있어도 아동학대는 줄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CCTV가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해요. 뉴스에서 잔인하게 나오는 아동학대를 내 아이가 당할 수도 있는 건가 걱정이죠. 뉴스에서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나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사고영상도 너무 끔찍해요.

<J어머니, 2018. 7. 18.>

이처럼 부모들은 언론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뉴스를 확인할 때 사고 장면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폭력적으로 느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강조하여 보도하는 언론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뉴스에서 범인이나 사고현장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슬로우 모션처럼 말이죠. 그럼 놀라면서도 계속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고나면 정말 무섭다 우리 아이는 어찌지 걱정 되는 거죠. 어린이집 학대사건도 뉴스를 보고 나면 머릿속에 계속 맴도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놀라서 멍해져요. 그러다가 아이한테 물어보고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죠.

<F어머니, 2018. 6. 7.>

뉴스에서 “잘 보셨습니까?”, “다시 보시죠.” 같은 말 나오면 사고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장면들을 보고나면 기억에 깊이남아요.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나 아이가 다치는 장면들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애가 다치는 거 같고. 남의 집 일이 아닌 거 같아요.

<H어머니, 2018. 8. 30.>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모들은 언론에서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부모들은 반복적으로 사

고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영상이 기억에 남고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5) CCTV 관리운영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 관심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운영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유난스럽게 보일 수 있는 본인의 모습을 걱정하여 소극적인 참여를 해왔다고 이야기하였다.

너무 적극적이거나 말이 많은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하면서 나쁘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내가 걱정해서 어린이집에 말하는 게 맘충으로 보여 지는 건 아닐까 걱정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거리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얼마든지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의식하고 소극적이었구나 이렇게 말이죠. 내가 아이 어린이집이나 CCTV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앞으로 어린이집 안내문도 읽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래야겠다 싶어요.

<C어머니, 2018. 6. 7.>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게 극성으로 보일까봐 걱정했죠. 궁금한 것도 참았다가 친구나 다른 엄마한테 겨우 물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어린이집에 물어보고 원장님이나 선생님이랑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인거 같아요. CCTV에 대해 궁금했으면 직접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너무 관심 없이 그렇게 넘어가려고만 했던 거 같아요.

<F어머니, 2018. 6. 14.>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부모들에 대해 유별하거나 극성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부모들은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CCTV에 대한 궁금증이나 자녀의 문제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부모들은 궁금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직접 물어보고 CCTV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CCTV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우리 아이가 제일 중요하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어린이집에 CCTV가 이미 설치되었고 운영해나가려면 부모도 어린이집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해나가야 할 거 같아요. 나도 아이 보내는 동안 어린이집이 CCTV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는거죠.

<F어머니, 2018. 6. 7.>

CCTV가 어린이집에 있고 문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볼 거야가 아니라 어린이집에는 우리아이가 있고, 선생님도 있고 같이 놀이하는 친구도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아이 보내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부모의 미덕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아이가 노는 환경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시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니까요.

<J어머니, 2018. 7. 11.>

어린이집에 CCTV가 있다는 게 안전을 위해 사용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동학대라고 열람한다는 생각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들도 무조건 의심하고 CCTV를 봐

야겠다하는 이기적인 마음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CCTV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CCTV 본다는 자격도 있는 거 같아요. 엄마들이 관심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E어머니, 2018. 7. 17.>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태도이며 문제해결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CCTV열람을 무조건 강요하는 태도는 반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CCTV열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CCTV 운영 전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모 스스로의 역할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와의 면담을 통하여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본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

첫째,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운영이 부모가 어린이집에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영유아와 상호작용 해야 하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CCTV가 운영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부모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정유정, 박경일(2012)의 연구에서 어린이집 CCTV는 설치자체만으로도 부모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확인함으로써 부모들에게 신뢰를 주고 불안감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은하 2014; 박귀숙, 2016; 이유진, 2016). 또한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운영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교사의 불편함은 영유아를 보육해야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자녀의 문제를 CCTV를 통해 해결한 부모가 보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

생활침해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정연정(2016)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운영하는 것에 신뢰를 가지게 되며 자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보육현장의 CCTV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들은 교사가 어린이집 CCTV를 의식하며 보육교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통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부모들은 교사가 CCTV를 의식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개선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태도개선을 통해 자녀들의 어린이집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부모들의 생각은 어린이집 CCTV 설치 후 교사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며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황은심(2017)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을 돕고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영유아의 생활 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염지숙 외, 2014). 어린이집 특성상 교사의 역할과 자질은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보육교사는 질 높은 보육을 위해 반성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교사의 사고과정과 신념이 교수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교사가 지녀야 하는 지식은 이론과 개념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천적지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교육적 태도에 대해 반성해보는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Beane & Zulick, 1989; Hillkirk & Dupuis, 1989; Richert, 1990, 석은조, 2005 재인용).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CCTV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스스로의 태도를 반성하고 점검하며 보다 나은 교사로서의 태도를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CCTV의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통해 자녀의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의 사고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CCTV가 각종 범죄 및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고, 아동학대 문제 발생 시 판단자료를 확보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선이(2016)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박귀숙(2016)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영아에게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모의 인식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가 문제 상황을 녹화하여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을 CCTV의 효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문제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CCTV 열람을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았다. 이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가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자세한 정황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CCTV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보호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넷째,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열람에 대한 의사가 있더라도 자녀의 담임교사 및 원장과의 관계, 사실 확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린이집에 열람의사를 밝히는 과정까지 고민을 겪고 있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게 되면 어린이집과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고 교사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태도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보육교사와 부모사이의 관계는 유아와 교사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유아가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도경은, 20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CCTV 열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사와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은 CCTV 열람을 신청함으로써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든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입학의 경우 영유아에게 있어 보호자이자 주 양육자인 성인이 최종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김지혜, 2013)는 점에서 본 연구 참여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자녀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부모들이 본인의 선택으로 자녀를 아동학대에 이르게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의 영유아기의 발달의 중요성을 알고 질 높은 어린이집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이 질 높은 교육 대신 안전사고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죄책감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고민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섯째, 부모들은 어린이집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어린이집 CCTV 열람 매뉴얼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매뉴얼을 살펴보면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 작성 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 어린이집 열람결정 여부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며 추후 열람기록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6).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따라 열람 매뉴얼에 대한 안내방법과 실행여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부모들의 불만을 어린이집 원장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의로 CCTV를 열람하는 등 CCTV 열람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민지(2016)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돌발 상황이 많은 어린이집 특성상 어린이집 CCTV 매뉴얼이 지켜지기 어렵다(강은진 외, 2016)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CCTV 운영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적용과 열람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이서연 외, 2017), CCTV의 운

영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운영관리 및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김태동 외, 2017). CCTV 열람을 하는 데 있어서 열람가이드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원장의 재량으로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신뢰감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고려된다. 따라서 부모들이 갖는 CCTV운영 절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문제해결 방법 및 CCTV에 대한 명확한 운영관리 및 규정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

첫째, 부모들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일방적 정보전달 형식의 CCTV 운영과 관련된 안내교육을 개선하고 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방법을 통해 부모교육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 중에는 어린이집 CCTV 안내교육을 상세하게 전달받아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있었으나 대부분 부모들은 일방적인 정보전달 및 간략하게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CCTV 안내교육으로 이해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김미정(2016)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내용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들이 이야기한 안내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일방적으로 CCTV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며 부모들의 눈높이 및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방법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CCTV 안내교육의 실행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교육의 실제 운영방식과 전달내용이 어떠한지 상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진숙(2017)의 연구를 살펴보면 원장-교사-부모가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모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 참여활동을 통해 교사들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어린이집 CCTV의 바람직한 운영과 실효성 있는 안내교육을 위해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 일방적 정보전달에서 벗어난 토론형식 및 간담회 등의 상호교류적인 교육방식 등 부모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CCTV 이용관련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 예방’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였다.

어린이집 CCTV가 도입되던 시기에 논란이 되었던 아동학대의 영향으로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설치의 주된 목적을 ‘아동학대 예방’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내·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어린이집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불만해결, 어린이집 하루일과 운영 지원, 자녀 양육고민에 대한 부모의 면담자료 등 다양한 측면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였다. 박귀숙(2016)은 CCTV 활용이 자녀를 안심하고 보호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아의 하루 일과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개별지도방안으로 활용되어진다면 부모와의 상담이나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수업모니터링, 교사들 간 자기 장학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모교육 내용의 질적 개선에 도움이 되며 부모에게 신뢰받는 보육현장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도 어린이집 CCTV가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CCTV 기능이 확대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하였다. 이처럼 ‘아동학대예방’이라는 CCTV 본래의 설치목적과 함께 어린이집 CCTV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어린이집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부모들은 객관성 있는 평가와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의 어린이집 CCTV 관리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였다. 부모들은 CCTV 보존기간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점에 처벌이 더 강력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어린이집 CCTV가 부모의 요구와 현장에서 필요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이후 정부차원에서의 CCTV 관리감독 결과를 부모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부모들의 요구는 어린이집 CCTV 설치부터 운영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CCTV에 관한 모든 책임을 어린이집 원장에게만 부여하지 말고 정부차원의 운영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심지선(2016)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훼손을 이유로 CCTV 열람을 거부당한 부모들은 보다 강력한 법적규제를 요구하였다. 어린이집 CCTV의 경우 영상기록이 삭제되었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선정된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의 판단 하에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상보존기간이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따라서 법적 처벌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면담과정에서 부모들은 확실한 기준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CCTV가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정부차원에서의 엄격한 어린이집 CCTV 관리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였다. 이러한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육현장에서는 다시금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부차원에서도 확실한 관리를 통해 부모와 어린이집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및 관련 뉴스가 자극적이고 주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언론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요구하였

다. 부모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CCTV 자료영상이나 사건보도 형식이 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CCTV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CCTV 관련 대응을 주로 부정적 시각에서 전달하고 있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과정에 대한 기사들은 주로 현상과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객관적 방식보다는 교사가 행한 아동학대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더 많이 보도되고 있다(이연선 외, 2016).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 보도에서 유아교사가 전문성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지 않고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긍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한다(한정신, 2016). 이처럼 언론에서 보육현장의 단점을 부각함으로써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CCTV 관련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도하려는 언론의 노력과 함께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언론과 보육현장 전문가들은 물론 부모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과 판단이 요구된다.

다섯째,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운영 및 전반적인 기관운영에 관심을 가지며 보다 적극적으로 보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부모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어린이집을 대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간섭하는 부모’, ‘유난’, ‘극성’ 등의 표현을 하며 의견을 피력하는 본인의 모습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게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부모로 인식될까 걱정하여 어린이집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교사는 상호 소통을 통해 보육을 함께 하는 사이로써 관계의 의미가 크며(송운석, 2015),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적인 관계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Hujaala. et.al, 2009, 송운석, 2015 재인용). 따라서 부모가 의견을 표현하는 본인의 모습에 대한 우려로 어린이집과 거리를

두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녀가 생활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CCTV 운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도 비참여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모습을 반성하며 어린이집과의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Swap(1993)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어린이집과 가정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중요한 요소로 부모들의 참여를 어린이집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자체 부모모니터링과 같은 부모참여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들도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며 어린이집에서의 CCTV 운영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요구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경험을 살펴본 결과,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된다고 하였다. 비록 어린이집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CCTV 운영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영아와 상호작용 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 운영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교사의 이러한 노력이 자녀의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어린이집 CCTV 열람을 통해 자녀의 안전 사고 및 아동학대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의 사고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고 싶더라도 담임교사 및 원장과의 관계, 사실 확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린이집에 열람의사를 밝히는 과정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열람을 하는 과정에 있어 부모들은 어린이집마다 CCTV 열람 매뉴얼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혼란스러워하였으며 개선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둘째,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들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운영안내 교육이 부모들이 이해하기에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였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학대 예방’ 뿐만 아니라 CCTV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하루일과 운영을 위한 보조적 기능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불만 사례 해결, 어린이집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 부모 상담 자료 등의 역할로 활용되기를 기대하였다. 한편 부모들은 어린이집 CCTV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객관성 있는 평가와 공정한 관리 감독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어린이집 관련 CCTV 영상이 대부분 ‘아동학대사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정되지 않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부모들은 기존에 어린이집을 대하던 소극적이고 비참여적인 태도를 반성하며 어린이집 CCTV 운영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모 스스로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요구를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바람직한 CCTV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제언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연령, 학력, 자녀수, 취업여부 등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배경변인을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경험과 요구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집 CCTV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은 부모와 교사 원장의 긴밀한 관계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 원장의 어린이집 CCTV에 대한 경험과 요구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만족스럽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CCTV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미경(2015). 유아교육기관 내 CCTV 설치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유형 연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선혜(2015). 유아교육기관 내 CCTV 설치가 유아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진, 이정림, 조혜주(2016).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2), 357-373.
- 권건보(2011).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世界憲法研究*, 17(3), 79-105.
- 권나연(2018). 지능형 CCTV 설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미란(2012). CCTV 존재 여부가 보육교사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2), 822-826.
- 권정윤, 조혜영(2017).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CCTV 필요성 인식과 역할수행, 어린이집 조직건강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37(6), 143-164.
- 김경희, 김선희(2016). 보육교사의 자기분화,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289-300.
- 김광숙(2017). CCTV 설치에 따른 영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적응유형과 대응 전략에 관한 질적연구.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두현(2002). *안전관리론*, 1판, 서울: 백산출판사.
- 김미정, 김구슬(2016). 경기도 어린이집 CCTV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선영(2018).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에 대한 원장과 교사 및 부모의 인식

- 비교.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I : Bricoleur, 3판.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희(2017). CCTV 의무화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일반인의 인식 차이 분석. 忠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김우태(2017).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 한국경찰연구, 16(3), 47-68.
- 김은미(2016). CCTV 설치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2014).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창(2015). 방법용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경찰업무 활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3).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과정 및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2017). 유아교육기관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인식 연구.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동, 이서영(2017). 어린이집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02(-), 143-162.
- 나달숙(2011). CCTV 운영 현황과 기본권 문제 연구, 법학논총. 35(2), 97-128.
- 도경은(2015). 보육교사와 어머니 간의 신뢰 및 협력과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유아-교사관계와의 관련성.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옥(201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의무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귀숙(2016). 어린이집의 CCTV 활용 및 정보공개에 대한 영아교사와 부모의 인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용(2014). CCTV 카메라의 실내공간분석을 통한 탐지 효율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수(2011). CCTV의 운용에 대한 경찰과 주민의 인식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5. 12. 22),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전예방 기대, 전자자료, CCTV, 어린이집 안전 지킴이의 중추역할. www.mohw.go.kr 에서 검색.
- _____ (2016)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보고서.
- _____ (2016).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서울.
- _____ (2017). 영유아보육법.
- _____ (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서울.
- 서보순, 구은미, 강인자(2016). 유아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직무만족도가 어린이집의 CCTV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16(-), 611-611.
- 서석원(2015). 학부모 불만해결 과정에 관한 유아교육기관 교원의 경험,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석은조(2005). 저널쓰기가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 자기조절학습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운석(2015).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의 조직신뢰와 학부모신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90(-), 53-77.
- 신현숙(2017).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육교사가 겪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지선(2017).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지숙, 이명순, 조형숙, 김현주 (2014). 유아교사론, 제 3판, 파주:정민사.

- 오정은(2015). 효율적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아정책연구소(2016). 보육실태조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민지(2018). 온라인 육아커뮤니티 속 유아교육기관 CCTV에 관한 비판적 담론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지(2018). 온라인 육아커뮤니티 속 유아교육기관 CCTV에 관한 비판적 담론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방우(2015). 공공기관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정(2010).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분석과 활용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연, 홍순옥, 정은주(2017).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사권리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적 인식. 아동과 권리/21(1), 41-59.
- 이선이(2016). 어린이집 CCTV전면설치와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조사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철(2010).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여진(2015. 06. 15).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www.nars.go.kr에서 검색.
- 이연선, 연희정, 손하린(2016).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 분석: 10대 주요 신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6(5), 467-489.
- 이영아, 이대균(2017).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과 바람.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1), 181-211.
- 이유진(2016).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원장, 보육교사,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도재(2017). 공영CCTV 설치 정책의 효과 분석.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정, 이일량, 이대균(2013). CCTV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교사 이야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3), 433-453.
- 정두승(2015). 전자적 노동감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정(2016). CCTV 설치에 대한 교사, 부모 인식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정, 박경일(2012). 보육서비스의 질이 학부모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2(-), 231-262.
- 정현심, 김태연(2015). 어린이집 CCTV 에 관한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타전공 대학생과의 비교. 아동교육, 24(4), 293-309.
- 정현옥(2011). 서울형 어린이집의 CCTV 및 IPTV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연익(2010). 방범용CCTV의 범죄억제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미예(2017).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느끼는 CCTV 설치 의무화의 의미 탐색 :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연아(2018). 어린이집 교사의 CCTV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과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선희(2018). CCTV 설치에 대한 보육시설종사자와 부모의 경험.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미(2017).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보육교사, 원장 및 부모의 인식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혜(2017). 교사의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 및 어려움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정신(2016). 보육시설의 CCTV 설치에 따른 보육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자치부(2015).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3423호, 일부개정 2015. 7. 24.
- 황영선(2009). CCTV의 범죄억제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심(2017). 가정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보육교사의 인식.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gdan, R. C., & Biklen, S. K. (2010). 교육의 질적 연구방법론(조정수 역). 서울: 경문사. (원서 2007년 출판)
- Glesne, C. (2008). 질적 연구자 되기 제 3판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3/E*] (안혜준 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서 2006 출판)
- Patton, M.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blcation.*
- research*] (박혜준, 이승연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 2006 출판)
- Seidman, I. (2009).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Interviewing as qualitative*
- Swap, S. M. (1993). *Developing home-school partnerships: From concepts to practi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ABSTRACT

Parents' Experience and Demands on the Operation of CCTV in Child Care Centers

Shin, Yoon-Ji

Department Child Care and Education

Child Care an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Lifetime Welfare of

Sungshin University

The study has researched to find out how to operate programs of child care centers' CCTV appropriately by examining the parents' experience and demands. The following questions have selected as following because the answers by questions are associated with how to find basic principles and implications for the desirable child care centers' CCTV System.

First, what is the parents' experience on CCTV System. in child care centers?

Second, what is the parents' demands on CCTV System. in child care centers?

This study have conducted with 10 parents , who were sending their

children to child care centers from April 16, 2018 to August 31, 2018. The in-depth interview had conducted 20 times totally, which were twice for each interviewee. Based on the interviews, we collected records, interviews, and researchers' journals. The results derived by the research method with categorizing and analyzing the data from the interview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interview with parents represent that CCTV system in child care centers contributes to parent's trust positively. In spite of the system may be inconvenient for teachers, the parents would like to adopt the CCTV operation and understand because of the specificity of the job as a teacher who must interact with the child. It also have an advantages for the parents that could be monitor the teachers attitudes in real-time. Furthermore, they believe teachers' secured attitude will prevent the child-abuse or child-accident. In the case that accident or abuse may happen, the CCTV operation could be a solid evidence to investigate reasons and responsibilities. Parents, however, are worried about deteriorating relations and fearing consequences. They have been complaining confuses about customized CCTV viewing manual and strongly want to improve the system conveniently.

Secondly, parents want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between child care centers and themselves throughout the bi-directional communication, such as open discussion, public hearing. They also believe that the CCTV systems could be an advanced tool to bring positive effect on the child

care center. They also prefer the CCTV system adoption by the governmental unified platform, not individual platforms for the objective evaluation and fair supervision oversight. Furthermore, they request the governmental role that should have more objective and regardful on the public media because some cases in the child care had broadcasted too sensitive and aggressive to the audience, especially the parents. The impact by the articles may cause the phobia to the parent who have children in the child care center. They also represent that they reflect themselves to change their role more active and have more attention on the child care center.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에서 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신윤지입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이해과 요구를 다룬 연구입니다. 어린이집 CCTV 운영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깊이 있게 탐구함으로써 어린이집 CCTV 운영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고 보다 바람직한 어린이집 CCTV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 2~3회의 개별면담을 실시하게 되며,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됩니다. 연구 참여자와 관련되어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기록될 것이며, 녹음내용을 비롯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연구 시작 전, 혹은 시작 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보육학과

지도교수 : 황인애

연구자 : 신윤지

본인은 연구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2018년 3월

연구참여자 : (인)